

북한 농업과 농촌의 활동체계와 현실

채 경 희(탈북인, 서울 삼흥학교 교장)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지배하는 것이 집단주의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전제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모두가 함께 생산하여 나누어 쓴다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정신이며 이 정신은 현재 북한사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1. 북한농업의 구조와 농사활동 조직 및 체계

1) 북한의 농업구조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 초기에 농업에서의 공동생산·공동분배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과정을 통해 토지와 농업생산요소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농민들을 ‘협동농장원’ 및 ‘농업노동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것’은 “아무도 주인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농업의 집단화는 결국 농산물의 작황과 직결되어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농업에서 집단체제 유지와 생산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했으나, 인간의 본성인 '자기 소유를 추구하는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성공한 나라는 전무(全無)하다.

북한은 1958년 '농업협동화'의 완성을 선포하여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을 만들고 여기에 모든 농민들을 망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집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1962년 북한은 군 인민위원회 농촌경리부에서 분리시켜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농촌경리의 말단 단위로 하여 이를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중앙의 농업위원회와 일원적으로 연결시켜 그 지도체제를 완성하였다.

1998년 9월 내각개편을 통해 중앙농업위원회를 농업성으로 개편하였으며 농업부문을 종합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며 농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농장에서 올라오는 연간생산 계획에 대한 조정 및 관리,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의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국영농장과 목장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며 농업생산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김일성이 가장 강조한 군(郡)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으로 농업생산의 계획화, 기술적 지도, 농업생산의 지역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기본단위인 협동농장은 1개리에 1개 농장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2) 농사활동 조직 및 체계

북한의 농장 형태로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협동농장과 전 인민적 소유에 바탕을 둔 국영농장 및 목장들이 있으며 그 중간 형태인 종합농장이 있다.

북한은 협동농장시스템을 만들면서 시, 군, 구역, 면, 리 등의 행정제도

에서 면을 없애고 시나 군의 바로 하위단위로 리(里)를 두었으며 1개리는 1개의 협동농장 단위로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관리위원회가 그 리의 생산에서 분배까지 관할하도록 하였다.

또한 1개 협동농장(관리위원회) 하위에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10개 작업반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1개 작업반은 기계화작업반, 1개 작업반은 축산작업반, 1개 작업반은 잠업반(누에 및 채소) 등의 전문적인 일을 맡아하며 나머지 4-7개 정도의 작업반은 논 및 밭농사를 전담하는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작업반 하위단위로 분조가 있는데 1개 작업반에는 5-7개 정도의 분조가 있으며 이 중 1개 분조는 비육분조(돼지나 가축을 기르는 분조), 1개 분조는 수리분조로 농기계수리를 전문으로 하며 나머지 3-5개 정도의 분조는 논 및 밭농사는 전담하는 분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조관리제에서 핵심인 분조는 보통 논은 10정보(1정보는 3,000평, 1평은 1.8m * 1.8m) 정도의 논과 밭을 가지고 있으며 밭만 있는 경우에는 8정보(지역마다 차이가 있다.)정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1개 작업반은 보통 50정보-80정보의 논 및 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개 분조에는 보통 10-30명의 노력인원이 있으며 1개 작업반은 100명-150명의 노력인원이 있는데 보통 농촌의 지형적 특성상 1개 작업반이 1개 부락을 형성하여 그 인원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산이나 고개를 넘어 또 다른 부락이 있어 작업반은 하나의 '소왕국'을 형성하고 있어 작업반장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부문은 전 인민적 소유가 아니므로 분배 과정에서 농장 경영성과를 농장원의 노동투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계산의 기초는 농장원의 노력일(노동일)에서 출발한다. 농장원의 농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분조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주로 분조별로 상급의 작업지시를 받아 농작업을 진행하는 농업의 특성상 분조장이 농장원의 노력일을 계산하여 그를 분배에 반영한다. 노력일은 협동농장 단위로 설정되는데 의무노동 일수는 연간 남자는

230일, 여자는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력일은 농작업별 난이도에 따라 평가된다.

2. 작부체계

작부체계는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일컫는 말인데 전통적인 밭작물 작부체계는 밀·보리(동작물)-콩·수수혼작(하작물)의 순서였으나 북한은 지역마다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통 밀·보리-감자-옥수수 순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경지면적은 1999년 기준으로 1,992,000ha이고 그중 논 면적 585,000ha, 밭 면적 1,407,000ha로 1인당 경지면적은 남한이 423m² 것에 비해 북한은 835m²로서 두 배로 많으며, 논과 밭에서도 인구 1인당 면적은 각각 북한이 많다.

- ① 간척 사업 : 북한은 59,520ha이다.
- ② 다락밭 건설 : 5대 자연개조 사업으로 계단식 밭을 만들 목적이었다.
- ③ 새땅 찾기 : 새땅 찾기 200,000ha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한편 식량 배급사정이 나빠지면서 개인이 주변 미간지를 개간하여 임의로 채소 등을 심어 먹는 돼기밭이 늘어나게 되었다.
- ④ 농업용 수원지 : 북한 1,890개
- ⑤ 양수장 : 36,400개

북한지역의 논 면적은 해방 전 323,700ha에서 585,000ha로 260,000ha나 늘었고, 밭은 114,000ha가 줄어든 약 1,530,000ha이다. 그러나 옥수수 재배 면적을 600,000ha로 늘리면서 밭관개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쌀 및 옥수수의 자급을 위하여 작부체계를 전환하였다.

3. 농법 및 문제점

북한 농업의 영농과정 및 협동농장운영에 커다란 축으로 자리 잡은 것

은 '주체농법'이다. 주체농법은 1970년대 중반 김일성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대 북한식 표현인 '한랭전선'(이상기후현상)의 영향은 기존의 농법으로는 도저히 농업생산량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경작 가능한 면적에 제한이 있는 북한에서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방법으로 단위면적당 소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농사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집약적으로 지을 수 있는 농법이 마련되어야 했는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 주체농법이다.

주체농업은 영농의 원칙, 방법, 지도관리에 관한 방침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농의 기본원칙은 첫째로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의 원칙하에 기후조건에 따라 지대를 세우고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물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며, 둘째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제고하기 위한 밀식농법의 준수이다.

영농의 방법에는 육종사업에 의한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지력배양 및 건묘의 생산, 과학적인 시비체계와 물관리, 병충해 예방 및 잡초제거, 철저한 수확관리 등 영농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작업내용을 세세하게 지시한다. 영농의 지도관리에는 청산리정신에 의한 지속적인 농업지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농법이 나오면서 농업에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해당지역의 토양과 기후조건에 맞게 작물을 심고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밀식재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단위면적당 재배작물의 포기수를 높이고 경지의 모든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농법이다.

구체적으로 밭 1고랑 1.8미터에는 22포기의 옥수수가 들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밭머리에서 끝까지 빠짐없이 뻑뻑하게 옥수수나 벼를 심어야 한다. 또한 직파농법(옥수수 종자를 직접 땅에 심는 방법)에서 이식농법(냉상모판을 만들고 옥수수 종자를 뿌려 일정하게 모로 자란 다음 포기로 옮겨 심는 방법)으로 바꾸어 한 포기, 한 포기가 소중하게 심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간에 죽은 포기가

나타나면 보식으로 그 포기를 보충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비체계의 과학화 농법은 윤작에서(땅을 한 해씩 묵혔다가 농사를 짓는 방법) 연작(동일한 토지에서 돌려짓거나 휴경 없이 동일한 작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하는 농법)으로 전환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논밭의 깊이갈이와 과학적 화학비료 살포를 의미하는데 경작지의 필지 단위로 시비량과 시비방법을 규정해 놓고 생육기별로 철저히 시비하며 화학비료와 함께 부식토 및 거름을 배합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과학적인 농법이 발굴되었음에도 북한은 생산계획량을 달성한 적이 별로 없다. 그것은 농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농법이 전제하고 있는 경제사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체농법은 알곡생산의 극단적인 증가라는 농업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생산이 일방적으로 강요됨으로써 고비용, 고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주체농법 시행 이후에는 알곡생산의 증가가 협동농장 생산과정의 기본과제가 되면서 수량성이 높은 작물로 작부체계가 개편되었고 조나 수수, 맥류는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옥수수가 전체 발작물의 63% 이상, 쌀과 옥수수의 비중이 약 77%까지 증가할 정도로 단작화 경향이 심화되었다. 특히 옥수수는 지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작물로 필요악이라 평가되기도 하는 작물이다.

주체농법대로라면 정보당 20톤의 유기질 시비를 강조하고 있는바 북한의 경지면적을 200만 정보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유기질 비료는 모두 4,000만톤에 달하는데 이를 생산할 여력이 없는 북한에는 무리한 농법인 것이다. 또한 모 이식, 모심기와 같이 장시간의 농업노동을 요구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렸으며 농기계와 연료의 부족으로 인해 농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였다.

4. 농민들의 삶

북한에서 농민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달프다. 낮은 사회적 지위, 빈곤한 생활, 불편한 후생시설 및 교통, 도·농간의 격차는 농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거주지의 자유가 없는 북한사회에서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면 대부분 그 곳에서 신분이 되물림되어 협동농장으로 살아가야 한다.

해뜨기 전에 포전으로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야 들어오는 장시간의 작업과 고된 농사일은 농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대부분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농사일은 매우 고달프다. 제대로 된 농기계 하나 없이 부림소가 고작인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사람이 소나 기계를 대신해 하는 일이 적지 않다. 봄에 밭을 갈고 모를 내고 파종을 하는 등 모든 것을 사람이 하고 있으며 여름의 김매기와 제초, 비료 및 살충제 살포 등도 농민이 직접 등짐으로 날라 하거나 허리를 구부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을의 추수 역시 농기계의 도움 없이 낫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겨울에도 늘 퇴비 모으기와 같은 노력동원에 참가해야 하는 사람들이 농민이다.

그들의 유일한 낙은 분배를 받는 것에 있으나 최근에는 군인용 식량으로 과반을 몰수당하거나 강제로 바쳐야 하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을 뿐이다. 각종 명목의 수탈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인민군대에게 1가구당 1년간 돼지 1마리를 바쳐야 하며, 그 외 군량미 명목으로 따로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분배포전을 분조별로 나누어주어 약간의 희망을 주고는 있으나 이것에 대한 관리는 휴일이나 식전 작업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작업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들이닥친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대중교통의 마비로 더욱 고립된 삶을 살았던 농민들은 시내의 장터에 나오려고 해도 수 십리를 걸어서 나와야 했었다. 이를 이용해 도시 상인들은 싼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옥수수나 쌀로 바꾸어 오는 경우가 많아 농민에 대한 도시민의 수탈이 심화되었다.

한편 1개리, 1개 협동농장 구성은 1개의 학교와 1개의 진료소를 만들었다. 그런데 1개 협동농장은 여러 개의 작업반 즉, 여러 개의 부락으로 형성

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락들은 고개를 넘거나 산을 넘어 위치하고 있어 농촌에서 먼 거리 통학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농촌의 학교에는 교사들이 배치되었다가도 자리를 뜨기가 일쑤여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으며 일부 교과목(영어)은 아예 폐지해도 · 농간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병이 나도 먼 거리에 위치한 진료소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으며 2차, 3차병원치료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5. 북한농업발전을 위한 대책

현재 북한의 농업은 낙후된 설비, 기술부족, 물 부족, 전기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서 양성된 탈북 농업전문가 및 축산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의 농업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기술전수 및 협력과 같은 민간단체 교류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여러 가지 우수한 농법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종자, 비료, 농약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북한의 획기적인 농업개혁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토지의 전 인민적 소유 및 협동적 소유를 개인적 소유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획기적인 농업발전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農